

중동 확전 우려에...환율 1510원 넘고 코스피 5400선 밀려

개인 '역대최대' 7조 순매수에도 6.49% 급락 코스닥도 1100선 아래로...금 시세 8% 내려 환율 1517.3원 금융위기 이후 17년만에 최고

코스피가 23일 개인 역대 최대 규모인 7조원 순매수에도 6% 넘게 떨어져 5400선까지 내려갔다. 금 시세도 8% 가까이 급락하고, 환율도 뛰어 1520원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1.05p(3.48%) 내린 5580.15로 출발해 375.45p(6.49%) 내린 5405.75로 거래를 마감했다. 급락장에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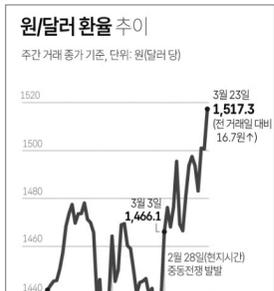
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장 마감 직전에는 지수가 6.63% 내린 5397.94까지 하락하면서 5400선 아래로 주저앉기도 했다.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3675억원, 기관은 3조8170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기관의 순매도액은 역대 최대다. 반면 개인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3000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떠받쳤다. 지난달 5일 6조7790억원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지 채 두 달도 안 돼

경신한 것이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내 오른 종목은 없었다. 삼성전자(-6.57%)와 SK하이닉스(-7.35%)를 비롯해 현대차(-6.19%), LG에너지솔루션(-5.19%), SK스퀘어(-8.39%) 등 대형주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31.66p(2.73%) 내린 1129.86에 개장해 64.63p(5.66%) 하락한 1096.8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90억원, 2000억원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만 4660억원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지난 20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삼천당제약(3.75%)만 올랐다. 이날 KRX금시장의 국내 금 시세

(99.99_1kg)는 전장보다 7.87% 내린 1g당 20만853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1g당 21만7130원으로 출발한 금 시세는 등락을 거듭하며 종일 낙폭을 키우 한때 1g당 20만821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시작된 금·은 선물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쇼크의 충격으로 국내 금 시세가 10.00% 폭락했던 지난달 2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전장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물가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작년부터 금 시세를 강하게 밀어 올린 중인 중 하나였던 글로벌 달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약해진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을 나타냈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증가를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9일 1549.0원을 기록한 후 17년만에 가장 높았다. 환율은 4.3원 오른 1504.9원에서 출발했으며 오후 들어 급격히 상승 폭을 키웠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증가를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9일 1549.0원을 기록한 후 17년만에 가장 높았다. 환율은 4.3원 오른 1504.9원에서 출발했으며 오후 들어 급격히 상승 폭을 키웠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



광주시는 23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지역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광주 AI·광산업 결합 '첨단방산 육성' 시동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출범...첨단방산 생태계 조성 본격화 위원장에 문화경제부시장...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가동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광산업을 축으로 한 첨단 방위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23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지역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협의체로, 광주시 방위

산업 육성을 심의·자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지휘본부로 기능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3명과 방산업체, 방위사업청·군, 대학 및 출연연 전문가 등 위촉직 8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광주시 방

위산업 육성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광주를 방산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전략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 방안, 민·군 협력 확대, 사업화 지원 등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제안서에 대한 자문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기존 제조업 기반에 인공지능(AI), 광산업, 모빌리티 등 지역 강점 산업을 접목해 국방반도체 중심의 첨단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AI 인프라와 광산업을 국방 분야와 연계해 국방용 화합물반도체와 AI 반

도체를 지역 특화 분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향후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 기반을 구체화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대응과 기업 지원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광주가 K-방산 대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이라며 "광주의 AI·광산업 역량을 토대로 국방반도체 중심의 첨단 방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송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2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재무부담 가중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16분기 연속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11(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엔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11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 이후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11당 +5원을 적용해왔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2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가 11당 -11.2원이라고 산정했다. 다만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조정단가에는 분기당 11당 ±5원의 상·하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정값이 하한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전기료를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원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작년 말 기준 205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

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11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의 부채를 개선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을 단기간 내에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 압박 우려 등으로 한전의 재무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다음달 16일부터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11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내놓은 조정안이었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한전에는 부담이다.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국내 통관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고 전기요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8~9개월이 걸리는 편이므로 올해 4분기 연료비부터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협회 광산지회, 청년 주거 상담

호남대서 전세사기 예방·청년주택 대출 등 안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산지회는 최근 호남대학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현장 중심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광주 광산구가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부동산 거래 지킴이 '지킴이 홈즈'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방법, 계약금 입금 시 소수자 계좌 일치 여부 확인, 대항력 확보 방법 등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핵심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또 청년주택 보증금 대출 가능 여부, LH 청년주택 정

보 확인 방법, 청약통장 개설의 필요성 등 청년 주거 안정과 직결된 다양한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 결과, 참여 학생들 다수가 청년주택 보증금 대출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 보증금 200만~300만원 수준의 원리를 거주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 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수 학생들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해 구체적인 질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여 개별 상담을 넘어선 체계적인 사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병선 광산지회장은 "비록 홍보 기간이 짧아 상담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참여한 청년들과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의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산지회는 최근 호남대학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현장 중심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앞으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안전 교육과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력거래소 "슬기로운 전기생활 누리요"

에너지 서비스 통합플랫폼 오픈...플러스DR 등 정보 한눈에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돕기 위해 전국민 에너지 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공식 오픈했다. 플랫폼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에너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정보 제공과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다. 특히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낮 시간대에 낮추고 저녁과 심야 시간대 높여 전력 계통 청정 및 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안전 교육과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금제 개편안' 시행과 맞물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봄·가을철 경부하기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에 따른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플러스 DR' 제도를 개편된 '계시별 요금제'와 결합, 경부하기 주말 및 공휴일 요금 할인 시간대로 전력수요를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의 요금 인하 혜택과 전력거래소의 플러스DR 정산금을 함께 적용받을 경우 기업은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11당 31~50원에 전력을 사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